

목포,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교통 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목포시가 오는 7월 10일부터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목포역, 버스터미널 등 시내 전역에서 이뤄질 이번 집중 단속은 시 이미지 제고와 올해 10월과 11월 개최 예정인 제 104회 전국체전·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주요 행사를 대비해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목포역 앞은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잠시 정차해 승객을 태우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한편, 시 이미지도 훼손돼 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반 투입 및 CCTV 단속을 통해 택시 호객행위·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인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는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에 주정차해 노선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 신청사 2층 역사관에 '고향사랑명예의 전당' 조성

해남군은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신청사 2층 역사관 벽면에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액 대상은 누적기탁액 500만원 이상의 개인 및 단체이다.

군은 기부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명패에 새겨 명예의 전당에 현액하고, 기부자들에게는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현액증서를 전달한다.

군은 지난 22일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현액식을 갖고 고마움을 전했다.

해남군 명예의 전당에 현액된 대상은 1억원 이상 '플래티넘'에는 최고액을 기부한 명현관 해남군수와 ㈜광주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와 ㈜광주주온행 해남지점이 이름을 올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소중한 시간과 기부금을 들여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기부자 여러분의 이름을 기쁘고, 군민들과 함께 감사의 전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유치... 해양레저관광 시대 개막

7척, 지난 22일 출항식... 1척당 연 3600명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 5년 내 100척 목표... 인구 늘리기·관광객 증가·군민 취미생활

강진군은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만들기 전략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첫 결실을 맺고 마량항에서 지난 22일 출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출항식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군의원, 도의원, 마량면 기관·사회단체장, 낚시어선 관계자,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 관계자, 군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출항식은 타지역에 있는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해 집체되어 있는 강진군의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마량항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다낚시 어선이 운영된 적은 있지만, 장기적 혹은 정기적인 운행이 드물어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다낚시 어선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낚시 어선 종사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대와 낚시어선 당일치기나 1박 2일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마

량항 관광객 증가로 편의점, 식당, 낚시판매점 등 주변지역 상가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군민 취미생활 제공이라는 이점을 더해 인구늘리기, 관광객 증가 등 1척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바다낚시 어선 1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 7억 원, 관광객은 3000여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서의 쾌속집주를 위하여 5년내에 100척의 낚시어선 유치를 목표로 설정



낚시 어선은 새로운 강진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고 500만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 '언제나 소통폰' 민원해결사 노릇 톡톡

민선 8기 '군민주권행정' 시책... 총 547건 민원·제안 접수 94% 해결

우승희 영암군수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입한 소통폰이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암군은 민선 8기 1년을 앞둔 지난 5월말 현재 영암군 소통폰을 통해 접수된 불만, 고충, 제안 등이 총 547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암군 소통폰(010-9881-8572·바로처리)은 '군민주권행정' 시책의 하나로 개설됐다. 언제 어디서나 휴

대폰 문자 등으로 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3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원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은 유형별로 '정주여건 민원' 분야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 정비나 상수도 정비 등 군민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생활민원' 분야 156

건, '문화관광' 분야 53건 등 순이다. 기타는 총 136건으로 '복지'와 '농업',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영암군은 접수된 민원 중 94%에 달하는 515건을 처리 완료했다. 중·장기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실행 여부 검토, 차기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자은도 '여인송' 숲 보호 나섰다... '공공공지' 결정

천혜의 자연유산 보호·공공복리 증진 나서



신안군은 깨끗한 모래사장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아름드리 송림이 어우러져 한쪽의 그림을 보는듯한 자연면 분계해변의 '여인송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

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 시설 중 하나이다.

분계해수욕장 주변의 점차 가속화되는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각종 건축물, 공작물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가능지와의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지

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현지 점검,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 면담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의 통틀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하고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공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계해변의 '여인송 숲'은 지난 2010년 제 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곳의 명물인 여인송은 관련 전설과 자연이 만들어 낸 조각품으로 자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이다"며 "앞으로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 분계해변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제 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

완도 전복 활용 신메뉴 속속 출시

CJ푸드빌, 리조토·샐러드·파스타 등

지역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잇따라 나왔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를 통해 출시됐다.

신메뉴는 크림 리조토에 버터로 구운 완도 전복을 올린 리조토와 부드럽고 맛있는 파스타의 해산물 샐러드다.

바질 페스토의 깊은 풍미와 고소한 치즈가 완도 전복과 조화를 이룬 '완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도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 출시는 전남도와 완도군, 장성군, CJ푸드빌 등이 지난 달 전복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CJ푸드빌 외식 브랜드인 빈스와 다른 매장에서도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완도군과 금산군이 '지역 특산물 공동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금산 인삼·완도 전복 삼계탕'이 개발돼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치기형 민속놀이' 지역 문화자원 육성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 선정

진도군은 2023년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가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한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진도군은 공모에 선정된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를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치기형 민속놀이는 주로 손과 도구를 사용해 부딪치며 건강한 승부욕을 길러냄과 동시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놀이로 교육·복지·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이미 가지고 있다"며 "치기형 민속놀이를 응용하고 활용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민속문화 계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관광지 추천

- 실제 서킷에서 레이싱의 열정과 에너지 느껴보기!
-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인 트로트 역사 바로 알기!
- 가족과 함께 물놀이 즐기기!
-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여행 즐기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월출산·기찬릿길·구림전통마을

